

희망가게 20주년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여성



20년의 희망가게, 도전과 성장의 기록

## 20<sup>th</sup> 희망가게 20주년 희망메시지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사업이 2004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23년 5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여 희망가게 창업주들에게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스무살이 된 희망가게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를 통해 희망가게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51호점

나와 같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주실 수 있도록 아모레퍼시픽 대박나세요!

249호점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100주년, 200주년 계속 계승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부모 사장님들에 무한한 희망입니다. 정말 저도 많이 힘이 되었구요. 내년 1월이면 상환도 끝나네요. 끝나면 시원섭섭할 것 같아요.

265호점

희망가게를 통해 창업 후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이 생겨나고 앞으로도 열심히 전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82호점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라날수 있었고 많이 부족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307호점

절박한 형편에 꼭 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처음 희망가게에 문을 두드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매장운영 6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희망가게는 희망과 미래의 역사입니다.

308호점

준 것에 반해 너무나 큰 것을 받았던 희망가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왔던 주셨던 매니저님께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받은 것보다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가게 관계자분들께 짧은 글귀로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늘 새기고 느끼며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334호점

낮았던 자존감이 높아졌고 알바를 여러 개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고 희망가게를 통해 창업을 한 6년 동안 신용불량이 회복되고 채무를 다 상환했습니다.

347호점

희망가게란 저에게 마지막 삶의 끈이었습니다. 기회를 얻어 사람답게 살 수 있었고 항상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줬기에 상처를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밝게 자라났습니다. 개인이 아닌 한 가족을 살리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49호점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이자 기적이 되어주었던 희망가게! 희망가게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혼가구도 늘어가고 고독사 그중에서도 생계를 비판해 아이와 함께 목숨을 끊는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한부모들이 더 이상 삶을 비판하거나 아이와 함께 불행하지 않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가게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희망가게와 함께할 예비사장님들, 서류면접을 시작으로 단계별 심사를 거칠 때마다 만나온 모든 희망가게 선생님들이 함께해준 창업준비가 있으니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삶에서 희망가게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

362호점

늘 감사하고 있어요 어렵게 아이와 살다가 나이가 많아 취업도 어려운 상태에서 희망가게는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재단입니다.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367호점

가장 두렵고 막막한 때에 창업과 경영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차분히 일에 전념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377호점

좋은 취지의 사업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와 지내는 첫 일박 이일 일정한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설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밤새 수다를 떨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생각에 교육을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라 뜨거웠고 하루하루 즐거워서 오픈준비로 무리하다 디스크가 터져도 마냥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역병을 만났고 제가 모르면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 빛만 남고 가슴속 상처만 남았지만 초등학교 자녀를 위해서 전 꼭 다시 일어날 겁니다.

436호점

오랜 시간 무언가를 한결같이 한다는 게 힘든 줄은 알았지만, 막상 사업을 해보니 더욱 힘들고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뒤편 시작은 쉽지만, 꾸준히 한다는 것이 아주 힘든 법인데 이 힘든 일을 20년째하며 희망을 보여주고, 꿈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해주는 희망가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듣고 노력해서 몇 년이 걸려도 대출금 꼭 갚고, 희망가게에 신청할 때 애기한 것처럼 또 다른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일 꼭하도록 할게요! 늘 감사합니다.

439호점

간절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간절하고 절박할 때 희망가게를 만나서 딸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렵게 통과했어요. PC를 다루기 힘들고 하루하루 일하기 바쁜 사람들에게는 절차가 조금 버거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간절하고 자신이 있는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47호점

희망가게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고 삶에 안정이 되니 제 일이 점점 좋아지고 더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제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저를 성장시켜주고 안정된 삶을 선물해주신 희망가게를 만난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 20<sup>th</sup> 희망가게

2023년 희망가게가 20년이 되었습니다. 희망가게는 한부모여성이 사장님이 되어 경영하는 가게로, 담보와 보증이 없어도 자립의지가 강하고 창업준비가 되어있는 분들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방식으로 운영되어 창업자금을 빌려쓰고, 사회적 약속을 바탕으로 자금을 갚아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창업주의 상환을 통해 또 다른 한부모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게되는 선순환 구조로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미션**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여성
- 핵심가치** 선순환 · 파트너십 · 혁신성 · 자립

## 20<sup>th</sup> 아름다운세상기금

1호점을 시작해서 500호점까지, 흔들림 없이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세상기금>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은 아모레퍼시픽 창업자인 故 장원(莊源) 서성한 회장의 유지에 따라 2003년 6월 유족들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해 조성된 공익기금입니다.

기금은 사용할수록 고갈되기 마련이어서 하나의 사업이 10년 이상 지속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세상기금>은 기금출연 이후에도 이어진 유가족과 아모레퍼시픽의 관심,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운영방식의 특수성, 아름다운재단의 노력, 희망가게 창업주의 용기와 끈기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희망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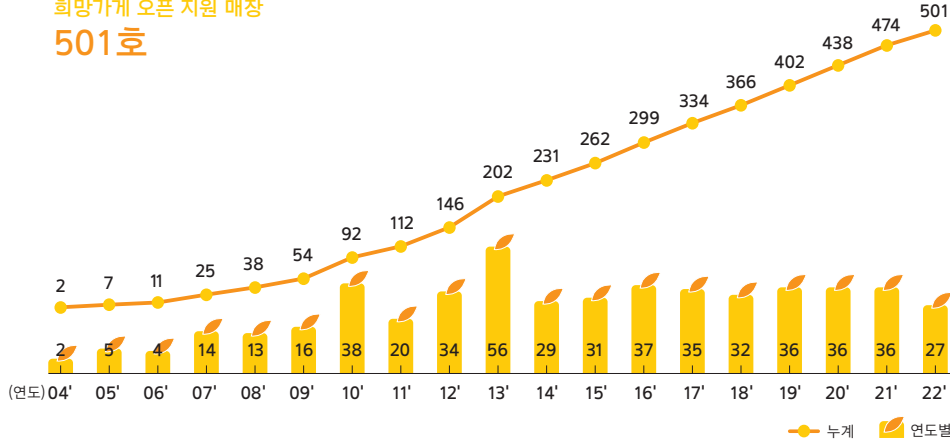
## 20<sup>th</sup> 희망가게 20년의 시간



# 20<sup>th</sup> 한눈에 보는 희망가게 200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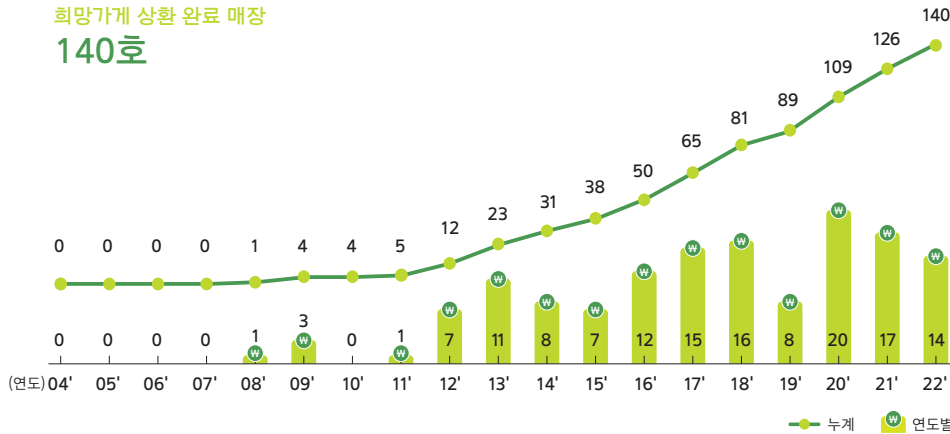
## 매장 오픈 현황

희망가게 오픈 지원 매장  
5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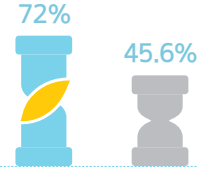


## 상환 완료 현황

희망가게 상환 완료 매장  
140호



## 사업 유지 현황



희망가게 3년 생존율  
소상공인 3년 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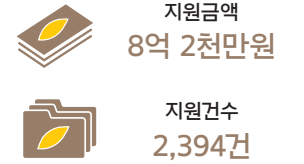
희망가게 3년 이상 유지 매장의  
평균 운영 개월 수: 70.3개월



## 창업 자금 현황



## 통합 지원 현황(최근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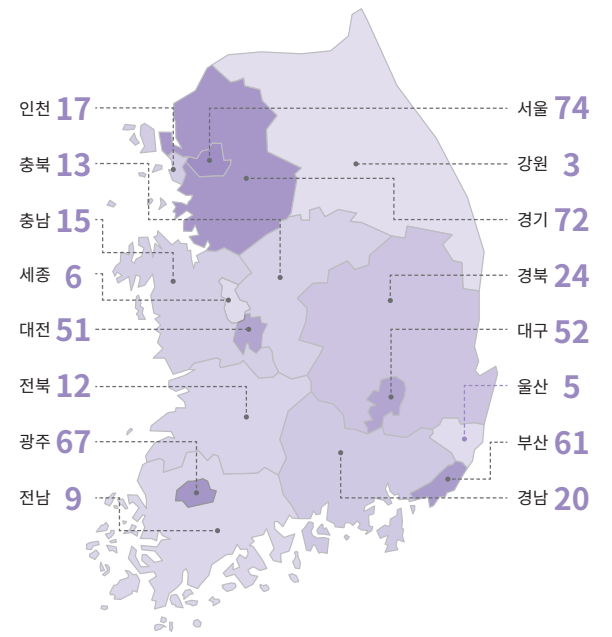
희망가게 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기술교육비,  
전문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 업종별 현황



## 지역별 현황



## 사업으로 삶을 단단하게 일군 여성 창업자들

희망가게 사업 초창기 건강식품점을 오픈한 이후 16년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옥자 창업주와 2017년부터 영어수학 전문학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경희 창업주의 이야기입니다.



## 희망가게로 삶의 끈을 붙잡은 순간

살다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여럿 겹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너진 삶을 붙잡으려 할 때, 여성들의 눈에 들어온 해결책이 희망가게였습니다. 희망가게에 최종 선정된 후 사업을 일궈가면서, 창업자들은 무너졌던 삶을 일으키고 자립을 향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암을 앓았어요. 경제적으로든 건강으로든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나를 도와줄 기관이 있을지, 발판이 되어줄 뭔가가 있을지 하는 마음으로 매일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러다 찾은 사업이 희망가게예요. 희망가게 선정 후 창업을 준비하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를 보내고 무척 힘들었는데 희망가게에 선정되면서는 그 슬픔조차 잊고 일을 했어요. 무엇보다 제 딸을 키워야 했거든요. 희망가게를 준비하면서 엄마를 보낸 아픔을 견뎌갔어요.** 희망가게에 선정되지 않았으면 그 시간이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_\_이경희 창업주

“이혼 후 신용불량상태로 가게에 취업해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저보고 가게를 인수하라고 제안하였지만 인수할 자금이 없었죠. 우연히 인터넷에 ‘창업자금’이라는 단어로 검색했는데 검색결과에 희망가게가 나왔어요. 무보증 무담보고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하다고 돼 있었죠. 사업계획서를 써냈고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과해서 너무 기뻐요.”

\_\_주옥자 창업주

## 희망가게를 만난 후 생긴 변화

창업의 여러 굴곡을 거쳐, 희망가게 창업자들은 좀 더 단단한 모습의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성장은 사업에서만 한정되지 않았고, 삶의 희망을 붙잡았다는 점에서 마음의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희망가게의 도전경험이 때로는 인생의 용기가 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창업자들의 삶에도 행복이 더해지는 순간이 생겨났습니다.

“희망가게를 하기 전에는 무척 우울했어요. 돈도 없었고 어딘가에 취업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여서 어떤 일을 못 했어요. **예전에는 하루가 검정색이었다면 지금은 밝은 빛으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대학원에서 상담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위해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보다 저에게 더 공부가 돼요. 대학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해 알아가고, 그런 깨달음을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지고요.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가니 요즘이 더 행복해요”

\_\_이경희 창업주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제가 신용불량자에 경제적으로 바닥에 있었는데, 희망가게를 하게 되면서 사장님이 돼 16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아이들이 제가 운영하는 가게로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올 때 뿌듯하고요. 그런 식으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됐다는 거, 희망을 가졌다는 게 제일 커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제가, 희망가게를 하고 창업을 하니가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이 된 거죠.

직접 영업까지 해서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됐잖아요. 딸 둘을 다 키워 집을 사서 결혼시켰고요.”

\_\_주옥자 창업주



콘텐츠 더 보기

\_\_사진: 이경희 창업주(좌), 주옥자 창업주(우)

여성 창업자들의 자립에 함께 한 러닝메이트\_희망가게팀

각각 희망가게 사업에 참여한 시기와 이유는 달랐지만 희망가게 사업의 필요성에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 장윤주, 김예주, 안명희 매니저의 이야기입니다.



## 희망가게 사업의 시작

이혼 또는 사별로 사회 안전망이 사라진 이들에게 1차적으로는 경제적 안전망을, 나아가 삶의 울타리가 되어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희망가게가 세상에 나온 이유입니다.

“당시 아름다운재단은 혁신적인 사업을 많이 기획했어요. **기부자들의 뜻을 받아 혁신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효과를 낼 사업을 고민하던 중,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사업이 당시 한국에 소개됐어요.** 자산도 보증도 없는 분들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사업인데,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에서 시작해 굉장한 성공을 거뒀죠. 한국이 방글라데시처럼 저개발 국가는 아니지만, 유효한 측면이 있었어요. **아름다운재단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인 희망가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_장윤주 매니저

“희망가게 사업은 초기 설계 당시의 목적이 명확했어요. 단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한부모 여성가장들이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창업자금을 대출해주자는 거였죠.**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창업을 준비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이 적은 분들도 있어요. 희망가게는 그런 분들에게 대출로 창업자금을 해주면서 창업자분들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인거예요.” \_김예주 매니저

“**희망가게는 수도권에서 시작돼 2008년에 지역으로 확대됐어요.** 대전충청 지역의 경우 아름다운재단의 협력 파트너를 공모에 지원하였고 최종 선정되며 사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수행할수록 창업주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까지 겪는 걸 알게 됐죠. 그들의 경제적 자립이 점차 제가 일하는 단체의 큰 목표가 되어갔어요.”

\_안명희 매니저

## 창업주와 함께 하는 기쁨과 슬픔

희망가게 매니저들은 누구보다 창업주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그들이 겪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합니다. 창업주들의 성공담과 실패담, 그 모든 순간에 곁을 지켜온 매니저들의 이야기에는 창업주들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이 담겼습니다.

“어느날 토요일에 한 창업주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긴장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간사님! 저 이번달 매출 1천만원 찍었어요!’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했다가 너무 기뻐요. **희망가게 일을 하면서 창업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그분들의 삶과 연결되면서 알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창업주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창업주분들의 삶이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_장윤주 매니저

“희망가게 사업은 8년이란 긴 기간 동안 지원사업 안에서 서로 함께 하죠. **누군가를 꾸준히 봐주는 게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곁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 선뜻 손 내밀 수 있도록 하는 게 희망가게죠.** 무엇보다 희망가게 창업자들 중에는 책임감 강하게, 어떤 어려움 앞에서 지혜를 발휘하면서, 비슷한 고민이 있는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열고 도와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며 많이 배웁니다.” \_김예주 매니저



콘텐츠 더 보기

\_사진: (왼쪽부터) 장윤주 매니저, 김예주 매니저, 안명희 매니저



## 희망가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3

한부모여성의 창업, 그 꿈을 함께 한 파트너\_아모레퍼시픽

사업의 탄생과 함께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희망가게 사업 안에서 건강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사업 담당자 송호준, 김기선 님의 이야기입니다.



###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희망의 시작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를 통한 판매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판매사원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이 많았습니다. 창업자인故서성한 선대회장은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며, ‘여성’을 통한 기업의 성장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사업에 힘을 기울였고, 그것이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이어졌습니다.

“희망가게와 아모레퍼시픽이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창업자들이 사업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같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업이란 것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정화되기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변수나 상황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 단계나 상황 별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고민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_송호준 님

“아름다운재단과 아모레퍼시픽은 ‘한부모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이루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가 뚜렷했어요.** 이를 위한 운영방향과 세부 프로그램은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팀에서 진행해주시고 아모레퍼시픽은 수시로 재단과 소통하면서 공통의 목표달성이 잘 되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논의할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_김기선 님

### 함께 바라는 희망가게의 미래

아모레퍼시픽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기업 사명에 맞는 선한 영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희망가게 20주년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낸 만큼,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상에서 희망가게 창업자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새롭게 조명받기를, 나아가 비슷한 조건에서 자립할 여성들을 위해 희망가게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창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이라는 목적달성을 하는 방식이 앞으로 많이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나눔의 선순환이 대출금 순환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순환으로 나아갈 거예요. 많은 **창업 사례들이 모여서 그 지식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일 겁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가를 배출하는 희망가게가 되길 바라요.” \_송호준 님

“일하는 여성의 희망이 되는 국내 최고의 공익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을 통해 성장하고, 내 꿈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여성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터 실제 가게 운영까지 선배 멘토가 되어 ‘일하는 여성의 희망이 되는’ 희망가게의 모습을 기대해요.**” \_김기선 님



콘텐츠 더 보기

\_사진: 송호준 님(좌), 김기선 님(우)



## 20<sup>th</sup> 희망가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④

희망가게에 전문성과 지속성을 더해준 조력자\_전문위원

급변하는 창업 시장에서 탄탄한 전문성으로 힘을 더해주고 있는 서정현, 차은심 컨설턴트의 이야기입니다.



###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작된 희망가게와의 인연

기금과 운영진. 희망가게 사업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는 갖춰졌지만 희망가게 창업주들에게 보탬이 되려면 지원자 선정과정에서 그들의 역량을 가늠하고 창업 이후에도 필요한 조언을 해줄 전문성이 필요했습니다. 창업자들의 역량을 가리는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의 체계가 만들어졌고, 창업 이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이뤄졌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형편이 어려워 이 사업이 아니면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창업의 준비도가 높아 생존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나중에는 후자의 방향으로 사업 성격이 맞춰져갔어요. 심사과정과 심사표도 만들면서 전문성을 더해갔습니다.** 재단 담당자들이 심사위원들과 사업의 초기 세팅에 열정적으로 임했던 게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_서정현 컨설턴트

### 창업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역할

희망가게에서 창업자들의 사업에 내실을 기해주는 심사위원들은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업의 보완 부분을 잡아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며 창업주들의 생존과 자립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심사와 함께 창업 후 점포 경영개선 컨설팅까지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창업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점포로 방문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드리고 있어요. **마케팅, 트렌드 분석 등 그 점포만의 ‘점포력’을 키우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_차은심 컨설턴트

### 희망가게와 함께 하며 바라게 된 마음

심사위원들은 각각 10년 넘게 희망가게와 함께 하며 사업의 성장과정을 지켜봐왔습니다. 그간 성장한 모습에 대한 격려, 여기에 더 나은 모습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까지. 창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희망가게의 앞으로 10년을 위한 조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지원사업이 현재 창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할 거예요. 희망가게가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창업 현장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현실적인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가 당부하려는 단어는 초심입니다. **희망가게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어떤 분들을 지원하려 했고, 무엇이 필요했으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떤 토론과정을 거쳐 현재의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를 잘 계승하면 지금처럼 꾸준히 희망가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_서정현 컨설턴트

\_사진: 서정현 컨설턴트(좌), 차은심 컨설턴트(우)



콘텐츠 더 보기



더 자세한 내용은 20주년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opestore.beautifulfund.org/20th-hope/>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 활동가,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입니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을 위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4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https://www.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의 희망가게는 담보와 보증이 없이 자립의지가 강하고 창업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한부모 여성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합니다. 대출된 창업자금은  
상환을 통해 또 다른 여성들의 희망가게를 여는 데 쓰입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전화 02-3675-1240

홈페이지 <https://hopestore.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